

# ISSIPF '92 를 다녀와서

이 명 환\*

'92년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 중국 남경에서 개최된 「지반개량 및 말뚝기초 관련 국제학술회의(International Symposium on Soil Improvement and Pile Foundation, ISSIPF '92)」에 참가하기 위하여 서울을 출발한 것은 3월 22일이었다.

본 학술회의가 개최된 당시에는 중국과의 국교가 수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미수교국 방문허가와 서울주재 중국무역 대표부로부터 발급되는 입국사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중국과의 직항로가 개설되지 않아 홍콩을 경유하여야 하는 불편을 감수 해야만 한다.

입국사증 발급을 위한 대회본부의 초청장이 도착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정상 사증 발급에 필요한 비용의 2배를 추가로 납부하는 공식 급행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지만 남경행 Dregon Air 에 탑승해서도 과연 학술대회가 제대로 개최될지(?) 하는 의문이 가지지 않았다. 그만큼 대회본부의 제반 준비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서울에서 함께 출발한 한국측 참석자는 명지대학교의 박용원 교수, 고려대학교의 이인모 교수,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의 김용진씨 그리고 필자 등 4명이었으나, 남경에서 도우엔지니어즈의 송병무 부사장, 재미교포 손근중 사장 내외분

등 3명이 합류하여 총 7명이 되었다. 남경행 여객기 안에서 만난 국제토질기초공학회 F.H. G. Parry 박사와 홍콩공항에서 만난 Moh Za-Chieh 박사의 참석으로 이러한 기우는 잠시 사라졌으나 남경공항 도착후 대회참석자 수송을 위하여 대기중인 coach 안에서 2시간 가까이 텅빈 버스를 지키고 있으면서 이러한 의구심이 가중되었다.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남경의 Central Hotel 에 도착하여 등록을 완료한 후에야 본 대회가 예정대로 개최되는구나 하는 안도감을 갖을 수 있었다. Central Hotel 은 남경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호텔로 중국의 개방정책과 때를 같이하여 건설되었고 정식개관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본 학술대회를 위하여 특별히 임시 개관하였다는 대회본부의 설명을 듣고야, 중국에서 이 대회 개최를 위하여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하는 실감이 들게 되었다.

학술대회 첫날 개회행사에 이어 아래와 같은 10개 주제의 초청 강연이 발표되었다.

1. Recent development of soil improvement(Prof.M.Kamon)
2. Soft ground engineering practice in Taiwan China(Dr Moh Za-Chieh)

\*정희원, (주)고려기초연구소 대표

3. Interaction of soil and foundation for cracking control in foundation engineering(Prof.G.G.Goble)
4. Stress wave measurements and the application to pile capacity determination(Prof.G.G.Goble)
5. Reinforced embankment behaviour : Recent advances(Prof.R.K.Rowe)
6. Case history : Another use of the vibrator hammer(Mr W.F.Akai)
7. Soil improvement performance in off-shore reclamation Kansai International Airport Project(Prof.K.Akai)
8. Deformation of line-fly ash colum and cement-fly ash-broken stone column reinforced composite foundation(Porf, Huang Xi-ling)
9. Vaccum preloading(Prof. Oian Jia-huan)
10. Application of pile foundation in Nanjing area(Chief Eng. Han Yun-qiao)

본 학술대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래와 같은 5편의 논문을 제출하였으며 대회에 참석한 이인모 교수, 송병무 박사와 필자가 주제발표하였다.

1. Granular subsoil improvement by vibrcfloatation compaction(이영남)
2. Highway and runway soil improvement(송병무)
3. Bearing capacity : model pile tests(이인모, 이명환, 백세환, 김동현)
4. Measurement of ultiment skin friction capacity of driven piles in granular residual soils by SPLT(이명환, 이인모, 김대영, 윤성진, 이상현)
5. Surficial(quaternary) deposit environ-

ment of Kwangyang bay and performance of soil improvement at Kwangyang Iron and Steel Mill site(김상규, 김동식, 유양수)

본 학술대회에는 총 196편의 논문이 제출되었으며 그중 102편이 2권의 논문집에 수록되었다. 제출된 논문의 대부분은 중국측에서 제출되었으며 중국측 논문중 상당수는 영문으로 번역되는 시간이 부족하여 수록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참석자들에게는 별도의 한자로 된 논문집이 제공되었으며, 여기에는 10개 주제의 초청강연 논문이 번역되어 수록되었다.

이처럼 국제수준의 학술대회 차원에서 보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은 대회였지만 지반 개량과 말뚝 관련주제로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중국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측에서 발표한 논문의 상당부분이 이론해석에 치우치고 있음은 이들이 실용적인 연구계기가 만들어지면 튼튼한 이론 배경위에서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마저 갖게 하였다.

대회행사의 일환으로 관광차 들렀던 공자묘는 기념품 상점과 포장마차로 혼잡하여 세계 4대 성인도 사회주의 세계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반면 삼민주의의 제창자 손문의 묘에서는 엄숙함이 지나쳐 이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남경시내 곳곳에서 간간이 볼 수 있는 서구적 옷차림의 남녀들과 소비재 상점에서부터 개방의 물결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이들의 추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국내의 기술축적 및 연구개발이 그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는 것을 실감해야만 했다.